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1. 출장목적

-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사례조사
- 배리어프리(barrier-free) 보행환경조성 사례도시를 조사하여 연구용역에 활용하고자 함

## 2. 출장기간

- 2018년 6월 22일(금) ~ 6월 27일(수) 5박 6일

## 3. 출장자 및 역할

성명	부서 및 직책	역할
이충훈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수석연구위원	- 다카야마시 방문인터뷰 자료준비 (배리어프리 정책, 교통시설물 설치기준) - 현장조사지역 안내 (다카야마, 도야마시의 조사 중점지역)
김원철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 기관방문 담당자 섭외 및 인터뷰 진행 (다카야마 시청 - 기획과) - 버스, 전철 등 교통환경조사 - 도시교통환경
신선하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연구원	- 인터뷰 내용 작성 및 정리 - 도시교통시설물 사진자료정리 - 기관방문 회의준비

## 4. 방문도시

### 1) 나고야

#### (1) 현황

나고야는 일본 주부(中部)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나고야의 인구는 에도 시대(江戸時代)에는 그 증가율이 매우 낮았으나 1921년 이웃한 16개 촌락을 합병하여 대도시가 되었다. 인구는 2016년 기준 230만명이며, 인구·면적의 증가와 병행하여 나고야 시의 도시 기능도 크게 변하여 과거의 '위대한 시골'의 이미지에서 '젊은도시'로 변모하였다.

#### (2) 모두를 위한 도시 유니버설 정책

외국인, 발달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복잡하지 않은 정보 제공 사인 등 '정보안내 디자인'은 시민들의 1차적 안전에 기여하며,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장애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시에서는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해서 횡단보도 신호등 음향시설 및 보행로와 연결된 점자블록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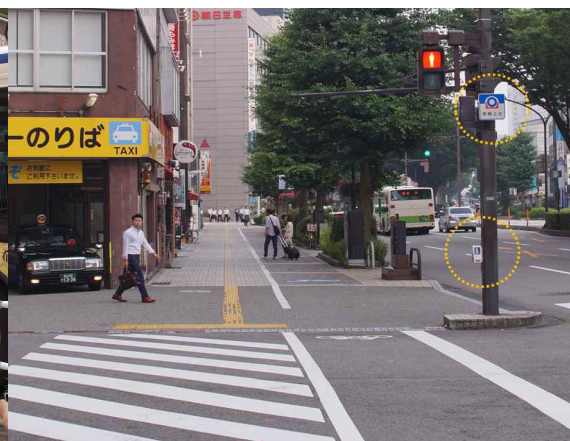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장애인용 보도블럭



▲저상버스 및 버스정류장 벤치



▲횡단보도 신호등주에 노약자 벨과 차륜금지표지

넓은 인도, 저상버스, 재활용된 탄성 블라드, 아동과 휠체어 장애인의 눈높이와 방문객을 고려한 각종 사인 등의 '교통디자인'을 추진하였으며, 가로등은 기능성과 심미성에 중점을 두고 설치하였다. 버스정류장은 실용성을 강조한 형태와 정류장 벤치는 편안함을 강조하였다.

나고야시는“안전,안심 마을 만들기”주민참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고령자 포함)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 안전,안심마을만들기 자원봉사 포스터

## 2) 다카야마(高山)

### (1) 도시개요

다카야마는 기후현[岐阜縣]에 속해 있으며, 일본열도의 가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8만8000명의 소도시. 400년전 성주 가나모리에 의해 당시 수도인 교토를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마을로 에도시대에 지어진 격자창의 가옥들과 전통적 산촌풍습이 고풍스럽게 남아있어 '작은 교토'라고 불린다.



▲다카야마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후루이마치나미(古い町駈)'

메이지[明治]유신 (1868) 이후 여러가지 변천을 거쳐 1936년에 다카야마시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행정구역들과 통합된 후 2005년에 주변 9개 구역과 통합, 도쿄도와 비슷한 면적을 가진 큰 도시가 되었다.

최근에는 “살기 좋은 도시는 방문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적 거리의 보존과 아울러 고령자와 장애인들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장벽 없는 도시를 조성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책자, 인터넷 정보, 안내 간판 정비 등을 통해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카야마 시청 기획과 및 유지과 담당자 회의



## (2) 모두를 위한 도시 유니버설정책

### ① 누구에게나 좋은 마을만들기 - 추진지침

다카야마시에서 사는 사람이 살기 좋고, 또한 살고 싶은 마을이 관광객들에게도 '살기 좋은 마을은 가고 싶은 좋은 도시'라는 기본 개념으로 「안전·안심 쾌적한 장애인의 마을 만들기」의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199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모니터 투어 "(실제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방문해서 도시에 존재하는 장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면 사업)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다.

다카야마시의 고령자 비율은 29.2%로 일본 평균보다 훨씬 높음. 고령화로 인해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져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카야마시는 '살기 편한 도시는 놀러가기 편한 도시'라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장벽없는 도시간 조성을 추진하였다. 세부적인 계획으로 장애인,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관광도시가 되도록 장벽 제거를 위한 시책에 주력해왔다. 시정책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프트정책을 추진하고,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 상인, 정책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다.

배리어프리 법을 개정하여 고령자나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 범위를 확대하였다.



▲ 다카야마역 앞 보행로와 단차없는 횡단보도



▲ 다카야마역 회랑식 보행자 통로

### ② 배경

지금까지 노인과 장애인에게 장벽을 제거하거나 장애인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켜 왔지만,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장벽을 제거하거나 유니버설 디자인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시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005년 3월에 「다카야마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장벽을 없애 마을 만들기에서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조례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마을 만들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 시책 및 시설 정비 등의 측면에서 도시, 시민, 사업자가 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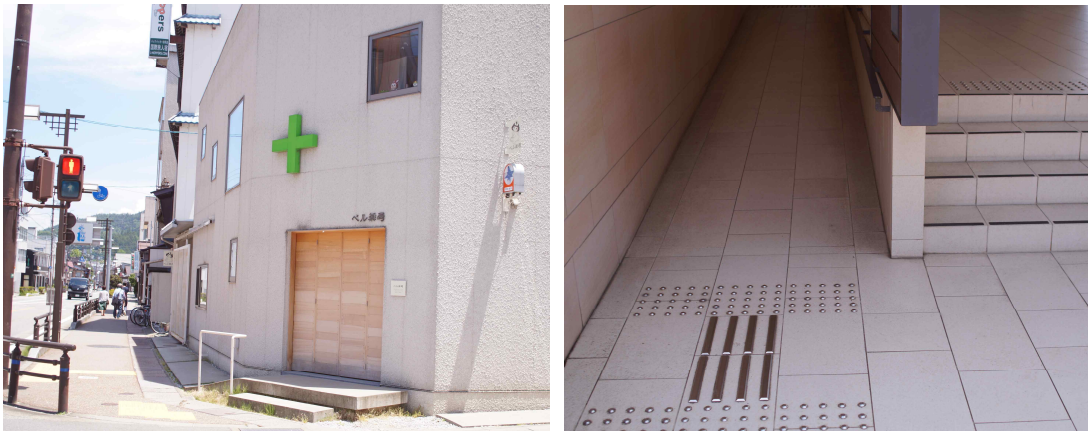
### ③ 목표

「다카야마시 누구에게도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직접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 돕는 마음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시설과 생활 환경을 정비 할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사는 사람, 방문하는 사람 모두가 개인으로서, 존중되고, 스스로의 의사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만남과 교류 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리의 실현을 도모 하고 있다.

‘부드러움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 다카야마’ 라는 조례의 목적을 기본으로 “좋은 거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인으로서 존중 되어 개성이 존중되는 마을, 둘째, 자유롭게 행동하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리조성, 셋째, 안심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마을조성이다.



▲건물 배리어프리법(2018. 5공포)에 의한 장애인통행로 설치

다카야마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이 서로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및 정보에서의 장벽 제거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언어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11개 국어로 만든 홈페이지 개설 및 시내지역 free- wifi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의 정책이 각인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시민참가에 대해서 추진회의를 매년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진행중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 ④ 배리어프리 정책추진사례

#### • 장벽 없는 도로 만들기

단차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 통행에 어려움으로 JR 다카야마역 10km 반경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였다. 5cm 이상이었던 단차를 2cm이하로 낮추고, 차도 폭을 좁히는 대신 인도 폭을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였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에 열선을 설치해 눈이 오면 녹색게 하고, 우수관의 구멍을 작게 만들

어 휠체어, 유모차, 케인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비나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구멍이 큰 우수관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횡단보도 출발선에 노약자용 벨 및 바닥조명등 설치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트렌치 1cm간격



▲도시방문자를 위한 벤치



▲보도와 차로 단차 3cm로 휠체어 통행



▲ 시내지역 free- wifi 지원



▲노약자를 위한 비상벨



▲다카야마 그린펀드에서 지원한 벤치설치



▲횡단보도 야간조명



- 휠체어 대응 화장실 설치

장애인과 고령자용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도 도로정비와 함께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해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휠체어 이용이 편리한 화장실을 조성했으며 지금은 어린이와 고령자, 장루·요루장애인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로 바뀌가고 있다. 공중 화장실은 158개 중에서 88개를 다목적 화장실로 개보수하였다.



▲시각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화장실 문 앞에 촉지도 설치(왼쪽)  
다목적 화장실의 내부.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시설(오른쪽)

- 외국인을 위한 정보안내서비스

시내 도로 주요위치에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번체, 간체) 등 4개 국어로 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표기에 의한 편리성제공

- 이동수단 지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승하차 보조기구를 구비하거나 휠체어에 대응 가능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 새로운 정책 추진계획

장벽을 없애는 포인트가 하드웨어적인 접근이었으나, 향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ex: 트랜스젠더)을 계획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남녀 화장실 이용에 혼란이 있어 다목적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계획이다.

일본은 왼손잡이(7%)를 이해 못하는 문화라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장벽을 없애는 부분에 AI 인공지능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3) 도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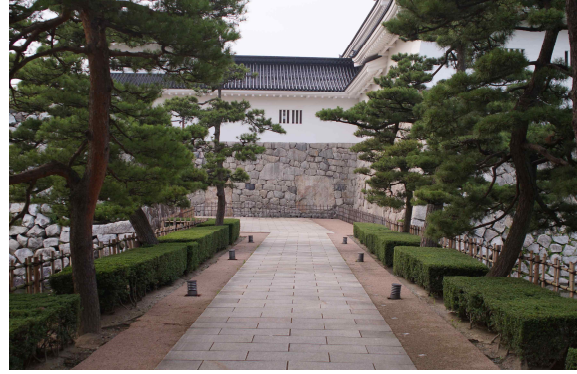
#### (1) 도시개요

일본 혼슈[本州] 중부에 있는 현청소재지인 도야마 시는 진즈 강(神通川)어귀에 위치해 있으며 조카마치[城下町]에서 성장한 도시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행해 국내외에서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 시내 중심가에 있는 도야마성



▲ 성내 보행공간

#### (2) 모두를 위한 도시 유니버설 정책

도야마시는 인구 감소, 고령화로 도시의 발전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에 주거, 상업, 의료, 복지, 교통 기능을 집중시켜 인구밀도를 높이는 콤팩트 시티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도시이다.

도야마역과 시청·주요 상업시설이 있는 도심을 가운데 놓고 대중교통을 재배치하고,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교통 결절점의 보행권내에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모아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지역 구심점을 연결하는 다핵형 콤팩트시티 디자인을 선택하였다.



▲ 대중교통수단“트램”



콤팩트 시티는 집과 직장이 가깝고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걸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심을 집약적으로 개발하자는 계획이다.

- 유니버설디자인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횡단보도에 신호버튼 설치하였으며,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건축을 장려하는 ‘하트빌딩법’과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교통 무장애설계 (barrier free)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약자용 버튼설치



▲자전거 이용자용 버튼설치



▲노선별 버스정류장 설치



▲ 시내 중심가를 운행하는 저상 미니버스



▲교량보행로와 인도폭을 동일하게 연결



▲보행로에 장애인과 자전거 동시통행



#### 4) 가나자와

##### (1) 도시개요

가나자와시는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중간 지점인 호쿠리쿠(北陸)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약45만의 인구를 가진 정치·문화·경제의 중심지로서, 사찰이나, 성(城)을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는 중세도시로 분류 할 수 있다.

##### (2)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정책

도시 내 벤치나 화장실, 식재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걷기 쉬운 보행환경 정비 추진 사업으로 가나자와 내에서 보행자 우선, 공용교통 우선 정책을 진행하였다.



▲노약자용 신호벨 설치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버스정류장 벤치

##### • 주민이 참여하는 경관형성사업

도로 주변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작업을 진행하며, 시에서는 도구 등 지원하고 있다. 가나자와 도로주변환경에 조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안내사인의 문자크기와 안전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였다.



▲도로 주변에 주민들이 자원봉사(맨 위) ▲ 고령자를 위한 안내사인표지

▲보행로를 회랑으로 연결(아래)



- 가나자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중심지의 상업화를 비롯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교외 이전, 대형할인점의 진출, 자동차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등은 지금까지 중심시가지가 길러온 다양한 도시기능의 저하를 가져왔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나자와 시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최우선 중요시책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도심의 빠른 성장보다,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심시가지의 활력과 매력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계획으로는 마을안의 주거와 교류의 촉진,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생활의 즐거움을 실감하는 정착 추진, 마을안의 교류활동 등이다.

- 모두를 위한 도시보행 공간 개선

도시내 벤치나 화장실, 식재 등 시민과 방문객들이 걷기 쉬운 보행환경 정비 추진사업으로 가나자와 내에서 보행자 우선, 공용교통 우선 정책을 진행하였다.

가나자와 성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유산을 둘러볼 수 있도록 보행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도심축 보행공간의 정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횡단보도 교통약자용 버튼설치, 물, 녹지 등 자연의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쾌적한 보행공간을 창출하였다.



▲보행공간의 정비



▲교통약자용 버튼설치

## 참고자료

1. 誰にもやさしいまちづくり 推進指針, 高山市
2. 誰にもやさしいまちづくり 學習資料, 高山市
3. 高山市誰にもやさしいまちづくり條例施行規則
4. 푸르메 재단, 누구나 살기 좋은 마을, 다카야마시, 2015. 2
5. 공주고도육성포럼, 2014